빠른 길과 느린 길 <강한 여자, 약한 남자 -2 편>

미국의 교육은 평등한가?

아니다. 미국 교육은 기회는 평등하지만 능력별, 차별화 교육이다. 고등학교의 같은 학년이라고 해도 어떤 학생은 초등학교 과정의 사칙연산과 분수 계산도 못하고, 다른 학생은 대학교 과정인 다차원 미적분함수를 공부한다. 심지어 고등학생 중에 라틴어로 된 고전백서를 읽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영어책을 읽지 못하는 학생도 있다. 문제는 가난한 집 자녀들 교육은 부자 자녀들의 교육을 따라가기 점점 힘들다는 것이다. 미국의 초,중,고등학교 교육은 지역 중심의 교육이다. 지역중심은 소득 중심이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과 섞여 살지 않는다. 고등학교는 세분류로 나누어진다. 저소득층이 다니는, 주로 흑인의 가난한 동네 고등학교와 백인 중산층과 여러분 자녀들이 다니는 지역의 공립학교와 부자들이 다니는 사립학교다. 오바바 대통령도 자서전에서 밝혔듯이 흑인아이들이 다니는 중,고등학교는 부모들이 일하러 나간 동안 아이들을 가두어 두는 '감옥소'와 같다고 혹평한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나쁜 짓과 마약을 제일 먼저 배운다고 한다. 교육의 절박함을 포기한 그곳에서 명문대학에 몇명이나 들어갈까. 대부분의 가난한 아이들은 대학에 들어갈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중산층이 다니는 공립학교에서는 직업을 갖기위한 기초교육과정을 가르칠뿐, 미국을 이끌어갈 지도자 교육을 가르치지 않는다. 인성교육이나 인격 양성은 기대할 수도 없고 미국의 지배자들도 원하지 않는다. 그런 중산층 공립 고등학교 한곳에서 아이비리그에 몇명이나 갈까. 일부의 극소수다. 자본주의 국가의 명문대학은 명문 사립고등학교 아이들이 독차지 한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가난한자들은 어릴 때부터 시작되는 그 비싼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다. 부유층 자녀들은 유아시절부터 차별화된 전문교육을 받고 자란다. 맨하턴의 어느 유대인 유치원은 등록금도 하버드 대학보다 비싸거니와 입학하기도 더 어렵다고 한다. 부자 자녀들은 비싼 교육비와 엄격한 교육제도하에서 청소년기를 성장한다. 사립 고등학교에서는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퇴학시키는 등, 엄격한 교육제도를 통해 지도자로 양성하는 것이다. 반면에

* 모든 저작권은 윌리칼럼 저자인 이위식에게 있으므로 저자의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가난한 집이나 중산층 자녀들은 어렵게 명문대학에 입학하였다 하더라도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빚갚는데 젊은 시절을 볼모로 붙잡혀 있어야 한다. 왜 미국의 대학 등록금은 이렇게 비싼 것일까? 지배자는 더 강력한 지배력을 갖기 원하며,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난한 자들에게 <노예의 족쇄>를 채우기 위해서일까. 실예로 미국의 대학생들 학자금 융자금액이 2010 년 기준으로 1 조달러를 넘어섰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부자와 가난한 자의 교육은 출발부터 차별화가 된다. 가난한 자가 신분상승이나 계층별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명문대학을 졸업하는 방법이 가장 지름길인데, 초등학교 시작에서부터 출발점이 다른 것이다. 부자집 자녀는 고가의 교육비로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직종에서 고소득을 받는 반면에, 가난한 집 자녀는 고등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쥐꼬리만한 임시직에 머물러 있거나, 거액의 학자금 융자 빚에 허덕이게 된다.

신경제에서는 좋은 대학을 졸업해서 창의적인 전문 직종에 종사해야 고소득을 받을 수 있다. 더구나 전문화된 고등 교육은 미래의 수입과 좋은 일자리, 좋은 인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전문 직종을 여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난다는데 남자들의 심각성이 있다. 남편보다 수입이 더 많은 아내는 1980 년대에는 20% 미만이었으나, 2000 년초반에는 세명중에 한명꼴이 되었고 지금은 두명중 한명꼴이다. 고등 교육을 받은여성들은 거의 절반 이상이 남편보다 수입이 더 많았다. 최고 전문직의 여성 비율도 1970 년대의 9.2%에서 1998 년 25%이상이 차지한다. 또 이런 전문직 여성들의 남편들 또한 대체로 수입이 상위 20%의 여유있는 사람들이며, 교육 수준도 높다. 높은 수입의 전문직 여성일수록 부자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가난한 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으로 저임금을 받으며, 가난한 사람을 만나 결혼한다. 끼리끼리 만나서 산다. 시간이 지날수록 빈부의 사다리 간격은 배수가 아니라 제곱으로 넓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한가지 곤란한 문제는 신경제에서 최고 전문직을 수행하려면 여자이거나 남자이거나 관계없이 거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일에 바쳐야 한다는 것이다. 전부가 아니면 제로의 세계, 빠른 길 아니면 느린 길, 그 중간은 없다. 빠른 길에 계속 남기를 원하면 고객과 함께 밤 늦게까지 일하면서 항상 대기하여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인맥을

* 모든 저작권은 윌리칼럼 저자인 이위식에게 있으므로 저자의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다져야 하고 끊임없이 소개되는 신기술과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그러니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문제는 빠른길 과 느린 길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지 않고 집에서 일하는 시간은 늘어났다. 돈버는 일이 모든 <조화로운 삶>의 나머지 부분들, 출산, 자녀들과의 시간, 친구, 배우자, 부모, 자원봉사활동, 취미생활, 단순한 의무라고 생각한 일들이 모두 밀려났다.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이 엄격히 통제되는 것이다. 아이들은 꽉 짜여진 일정에 맞춰 분주하고, 주말에는 일과 관련된 행사, 접대, 바쁜 만남 등으로 일정이 가득 차고, 머리 속은 항상 무언가로 가득 차 있다. 아직 끝내지 못한 일, 아직 만나지 못한 고객, 다가오는 마감시간..... 마치 자동차 소음처럼 이 모든 것이 삶의 나머지를 충실하게 살아볼려는 당신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전문직에 종사하는 고소득 수입의 여자라면 빠른 길과 느린 길중에서 어떤 길을 택하겠는가? 아니 당신의 딸이라면 어떤 길을 가라고 할 것인가?

* 모든 저작권은 윌리칼럼 저자인 이위식에게 있으므로 저자의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